

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의 경과와 전망*

이 원 수**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쟁점 및 해결의 전망 |
| II. 분단 이전의 경과 | 1. 창작 동기 및 시기 |
| III. 분단 이후의 경과 | 2. 작품 해석과 관련된 문제 |
| 1. 남한 학계의 연구 | V. 맺음말 |
| 2. 북한 학계의 연구 | - 남북의 통합을 위하여 |

I. 머리말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장벽을 쌓고 살아온 그 세월만큼이나 남과 북의 삶과 문화도 이질화되었다. 따라서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일이 우선 시급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학문 교류, 특히 국학의 교류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념과 체제는 달라도 남과 북은 오천 년의 역사와 문화, 하나의 말과 글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념과 체제가 갈라놓은 남과 북의 민족적 동질성을 복원해 가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¹⁾

그런 점에서 근래 우리 국문학계가 북한 학계의 동향에 적극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남북의 교류가 단절된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학계는 서로의 연구 성과는 물론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마저 나눠 갖지 못함으로써 국문학 연구는 우리 민족문학 유산을 온전히 아우르지 못하는 반쪽의 연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고전문학 연구의 경우 남북이 공동의 유산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자체가 달라진 현대문학의 경우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분단 이후 새로 발굴된 많은 자료들과 서로의 연구 성과들을 나눠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글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의 경과를 살펴 그 성과와 한계, 둘 사이에서 드러나는 편차와 쟁점을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연구사를 우선 분단 이전과 분단 이후로 크게 나누고, 분단 이후는 다시 남한 학계와 북한 학계로 나누어 각각 검토한 뒤, 이를 종합하여 남북한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전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남북한의 연구 경과를 비교함에 있어 분단 이전의 연구 경과를 먼저 살피는 것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연구 성과를 알아야 남과 북이 이를 어떻게 달리 계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를 통해 남북한의 연구 시각 차이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다만 이 글은 <사씨남정기>의 연구사 정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남북한의 연구 경과를 비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남한 학계의 연구 경과는 연구사적 의의가 크거나 북한 학계와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는 논의들을 중심으로 큰 흐름만 살피고,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은²⁾ 북한 학계의 연구 경과는

1) “언어는 민족의 공통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며” (김철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과학의 발전」, 『조선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 토론집(문학분과)』, 사회과학출판사, 1989, 28쪽)

2)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 학계의 <사씨남정기> 연구 경과를 제대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II. 분단 이전의 경과

<사씨남정기>에 대한 논의는 안확(1922)³⁾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논자는 이 작품이 ‘시앗싸흙’을 다룬 ‘가정소설’의 하나로,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고전소설을 개괄하는 자리에서 나온 단편적 언급이지만, <사씨남정기>를 ‘처첩갈등형 가정소설’ 유형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견해는 대부분의 후속 논의들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

<사씨남정기> 연구가 좀더 구체화된 것은 김태준(1939)⁴⁾에 와서였다. 그는 북한 김춘택의 기록을 통해 이 작품이 서포에 의해 한글로 창작된 뒤 북한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됐음을 밝혀내는 한편, 이규경의 기록을 근거로 이 작품이 숙종의 민비 폐출을 풍간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목적소설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적소설로 볼 때 이 작품은 서포가 민비 폐출에 반대하다 귀양을 가서 세상을 마치고까지의 기간, 즉 숙종 15년(1689)부터 숙종 18년(1692)년 사이에 지어졌으리라 추정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새로운 자료 소개와 쟁점의 제기를 통해 <사씨남정기>

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논문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의 논저는 문학사나 소설사, 개론서 등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한 단행본이 대부분이고 논문은 거의 없으며, 우리는 북한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목록조차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북한의 학위논문 목록이 일부 소개된 바 있으나(우상렬·이광호, 『한국학 관계 북한 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 목록』, 『정신문화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59-296쪽), 그 가운데 <사씨남정기> 연구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석사학위 논문 1편뿐이고, 그것마저도 논제만으로는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없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문학사나 소설사 등 필자가 언어 볼 수 있었던 극히 제한된 북한 논저들만을 검토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그 만큼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3)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101-102쪽.

4)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09-123쪽.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후속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의 논의를 통해 한글본과 한문본이 공존하는 이 작품의 원작 표기문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그가 주장한 목적소설론은 후학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면서 작품 해석의 관점을 다양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의 논의에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그는 목적소설이라는 불확실한 전제에 근거하여 작품 창작 시기를 서포의 남해 유배기로 단정 짓고 있으며, 작품외적인 정치적 목적성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작품에서 서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처첩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후속 논의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작품내적 사건을 장희빈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바로 대응시켜 해석하는 환원론적 오류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조운제(1940)⁵⁾는 <사씨남정기>가 “숙종대왕이 민비를 폐출함을 풍간코자 지은 것”이라는 목적소설론에 대해 유보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일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작품은 김춘택의 말처럼 “백성들을 깨우치고 세상의 교화를 도우려는(敦民彝 禪世教)” 목적에서 지어진 소설일 것이라 하였다. 그의 견해는 이 작품을 목적소설로 본 김태준(1939)의 견해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목적소설 논쟁의 출발점을 이루면서, <사씨남정기> 연구가 작품외적인 목적성에 구애 받지 않고 작품 자체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Ⅲ. 분단 이후의 경과

1. 남한 학계의 연구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남한의 <사씨남정기> 연구는 창작 동기, 이본 판계⁶⁾, 작자 및 원작의 표기문자,⁷⁾ 배경 사상⁸⁾ 등 주로 작품 주변적인 문제를 중

5) 조운제, 「조선소설사 개요」, 『문장』 2권 7호, 1940(『도남 조운제 전집·4』, 태학사, 1988, 49-67쪽)

6) 정규복, 「<남정기> 논고」, 『국어국문학』 제26호, 국어국문학회, 1963, 291-307쪽.
정규복, 「번언남정기고」, 『연민이가원박사 육질송수기념논총』, 법학도서, 1977.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창작 동기 문제였다. 김태준(1939)이 주장한 이른바 목적소설론을 두고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⁹⁾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¹⁰⁾이 맞서면서 작품 연구 경향 또한 그에 상응하는 편차를 드러내었다. 목적소설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주로 숙종 때의 장희빈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시켜 작품을 해석한 반면,¹¹⁾ 목적소설이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는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작품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 차원의 논의도 이 시기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였는데, 고전소설 유형 분류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씨남정기>는 안확(1922)의 전례에 따라 가정소설 유형에 귀속되고,¹²⁾ 그 중에서도 쟁쟁한 가정소설의 중심 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었다.¹³⁾

이 시기의 논의는 서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사씨남정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그 성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작품론은 작품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의 발견에만 머물고, 발견된 현상의 원인이나 심층 의미를 밝혀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며, 유형 차원의 논의 또한 단순한 분류의 단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본격적인 유형론으로까지 심화되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작품론과 유형론, 이본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사씨남정

7) 정규복(1963)

8) 강중탁, 『사씨남정기의 불교사상』, 『명지어문학』 제11호,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79, 97-107쪽.

9) 전규태, 「<사씨남정기> 연구」, 『한국고전문학의 이론』, 정음사, 1966, 276-296쪽.
정규복, 「<남정기>의 저작 동기에 대하여」, 『성대문학』, 제15·16집, 성균관대, 1970, 35-39쪽.

김무조, 『서포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6, 85-92쪽.

10) 이석래, 「서포소설(남정기·구운몽)의 문제점」, 『성심어문논집』 제1집, 성심여대, 1966, 13-16쪽.

김현룡, 『사씨남정기 연구』, 『문호』 제5집,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1969, 136-146쪽.

우쾌제, 「<사씨남정기> 연구」, 『승전어문학』 제1집, 승전대 국어국문학회, 1972, 49-68쪽.

11) 김무조(1976)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12) 우리어문학회 편,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259쪽.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329쪽.

13)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295-309쪽.

기> 연구는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때에 와서 비로소 ‘목적성’을 전제하지 않은 작품론이 본격화되고 정밀한 작품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작품 내적 갈등의 성격과 의미가 재조명되고,¹⁴⁾ 작품의 주제 및 작중 인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었다.¹⁵⁾ 방대한 이본을 치밀하게 비교한 이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유형론적 논의도 차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¹⁶⁾

교씨의 악행이 축첩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읽어내고, 그를 통해 이 작품이 제도의 불합리를 개인의 인성 문제로 돌려 본질을 은폐하고 있음을 밝혀낸 것이나, 치밀한 서지적 검토를 통해 이본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것¹⁷⁾은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작품론의 경우 작품 해석의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이념적 기반, 작자의 계층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형론은 가정소설 범주를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논리의 치밀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직 적지 않은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잠시 주춤했던 <사씨남정기> 연구는 90년대 이후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다. 유형 차원의 논의 및 소설사적 맥락과 연관된 논의가 심화되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확장되고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도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¹⁸⁾

14)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 『문학과 언어』 제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2, 135-158쪽.

차용주, 「양처 및 처첩간의 갈등양상에 대한 고찰」, 『고소설논고』, 계명대 출판부, 1985, 171-199쪽.

최시한, 「가정소설의 형식과 유교이념(1)」, 『정연찬선생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탐출판사, 1989, 559-586쪽.

15) 김석희, 「서포소설의 주제 시론」, 『선청어문』 제18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9, 234-246쪽.

김경미, 「사씨남정기 작중인물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1-77쪽.

16) 우래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17) 이금희, 「<남정기>의 문헌학적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6.

18)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1, 1-242쪽.

진경환, 「소설사적 관점에서 본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의 관계」,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299-337쪽.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1-91쪽.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 박

하지만 이 시기의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작품론의 심화였다. 당대 시대 상황과 이념적 기반, 작자의 계층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층 정밀해진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 내 갈등의 성격과 의미, 등장인물의 성격, 작자 의식과 이념, 작품세계의 미학 등을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밝혀내는 작업들¹⁹⁾이 이어지면서 <사씨남정기> 연구는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가문주의 이념이나 가부장제와 관련하여 처첩갈등이란 현상의 이면에 담긴 사회사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읽어낸 것이나,²⁰⁾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그 동안 소극적·관념적 인물로만 인식되어 온 사씨의 삶에서 적극성과 현실성을 읽어낸 것²¹⁾ 등은 접근 방법의 확장을 통해 작품 이해의 시각을 넓혀 준 중요한 성과였다. 이 밖에 작품 내 선악의 갈등을 욕망의 문제나 인간

사논문, 1995, 147-181쪽.

이성권, 「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 1998, 22-53쪽.

정출현, 「조선후기 가정소설의 전통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A), 397-424쪽.

- 19)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작품구조와 인물 형상」, 『김만중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219-297쪽.

엄기주, 「<사씨남정기>의 의미와 서포의 작자의식」,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3, 233-264쪽.

김연숙,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사씨남정기>」,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49-90쪽.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7, 91-113쪽.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17-245쪽.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고전소설」, 『문학과 교육』 제12집, 문학과교육연구회, 2000(B)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제1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0, 146-172쪽.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 371-396쪽.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121-154쪽.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구도」, 『한국문학연구』 제2집,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176-207쪽.

- 20) 박일용(1998) / 정출현(2000·A) / 강상순(2001)

- 21) 지연숙(2000)

심성의 문제와 연결시켜 해석한 논의,²²⁾ 작품의 기본 구도를 선악 대립으로 보고, 사씨와 교씨의 대립을 충신과 간신의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과를 주목한 논의²³⁾ 등도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심화, 발전시키면서²⁴⁾ 작품 해석의 관점을 다양화하고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많은 논쟁거리도 새로 마련되었다. 그것은 작품의 기본 구조,²⁵⁾ 갈등의 성격과 의미, 등장인물의 형상, 작품의 총체적 의미 등 작품 해석의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작품의 창작 동기²⁶⁾나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과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어떻게 보면 <사씨남정기> 연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22) 김현양(1997) / 신재홍(2001)

23) 이상구(1993, 2000)

24) <사씨남정기>가 선악대결 구도로 짜여 있다는 점은 초기 연구에서부터 이미 충분히 인식되고 있던 것이다. 이 작품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초기 연구자들의 주장에는 이 작품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짜여 있다는 것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5) 작품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서는 ‘처-첩 대결’ 구도나, ‘선-악 대결’ 구도나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씨남정기>는 처첩갈등을 선악대결의 형태로 형상화하고 있는 만큼, 이 둘을 배타적인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작품에서 ‘처-첩 대결’ 구도와 ‘선-악 대결’ 구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선악대결 구도는 우리 고전소설에서 두루 확인되는 보편적 구조인 만큼,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누구를 선인과 악인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선악대결에만 주목해서는 작품의 의미나 작자 의식 등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26) 이상구(1993, 2000)는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맞아들인 속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이규경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반면, 정출현(2000)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그 이념을 ... 만천하 여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여, “여항간 부녀자를 깨우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한 복현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2. 북한 학계의 연구

분단 이후 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는 사회주의 문예이론 및 주체적 문예 사상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접근 시카이나 해석의 기본 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변화가 없지만, 구체적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적지 않은 편차도 드러난다.

먼저 『조선문학강독』(1955)²⁷⁾은 김태준(1939)처럼 이 작품을 장희빈 사건의 ‘모델소설’로 보고 처참갈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서포의 국문문학론을 “선진적이며 탁월한 견해”라 평가하고, 국문소설 창작만으로도 서포는 “고루한 일반 유학자들”과 엄격히 구별된다고 함으로써, <사씨남정기> 연구에서 작자에 대한 선입견²⁸⁾과 이념적 편향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단초를 보여준다.

북한의 연구는 『조선문학통사(1959)』²⁹⁾ 및 윤세평(1959)³⁰⁾에 이르러 본격화된다. 이들은 ‘모델소설’론을 수용하면서도 작품 자체에 관심을 집중한다. 축적제 및 봉건 유교이념의 모순성, 통치계급 내부의 부패상, 작품의 미학적 형상, 작가의 세계관적 제약성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연구 시각의 이념적 편향도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사씨남정기>는 ‘양반귀족 가정의 처참갈등을 제재로 삼아 그들의 추악상과 비극적 운명, 봉건 통치배의 부패상을 보여 주는’ 작

27) 조선문학강좌 편, 『조선문학강독(2)』(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1955, 132-134쪽.

28) 북한 학계에서 서포는 우리말과 우리말 문학의 가치를 인식한 주체성 있는 사대부로서, 또 일찍부터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로서,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인물로 한결같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가 이처럼 평가되는 핵심 이유는 그가 국문문학론과 소설옹호론을 주창했다는 데 있다. 당시 사회에서 천대 받던 우리글과 소설에 대한 서포의 적극적 가치 부여는 민족 주체성이라는 사상적 측면과 인민성이라는 계급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이념적 지향과 그대로 일치되기 때문이다. 서포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시각은 그의 소설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작품세계의 인민성과 반봉건성, 의식의 진보성과 선진성, 사실주의적 성과 등이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되는 등 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이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김은샘, 1992), 272-277쪽.

30) 윤세평, 『서포 김만중과 그의 창작』, 『고전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149-203쪽.

품으로 해석되고,³¹⁾ 작품세계의 “사실주의적” 경향이 이 작품의 탁월한 성과로 새롭게 주목된다. 특히 교씨의 형상을 “그의 악덕의 타고난 천성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처한 봉건귀족 가정의 환경과 조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³²⁾으로 해석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면서 사씨를 너무 이상화시킨 점이나, 인과응보의 논리, 일부다처제의 인정으로 끝난 결말 등은 작자의 계급적·세계관적 제약성에서 비롯된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북한 학계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았지만 그 만큼의 문제점도 드러내었다. 이는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³³⁾의 구현을 위한 자의적이고 도식적인 작품 해석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들은 현대의 관점을 과거에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허구의 세계를 역사적 사실과 동일시하고, 작품을 전체로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끌어와 논거로 삼으며, 구체적 논증도 없이 모든 부정적 현상들을 봉건 통치체제나 양반계급의 모순과 연계시키고 있다. 작품이 지닌 낭만주의적 경향은 애써 외면하면서 사실주의적 경향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봉건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력 강조하면서도 그 토대가 되고 있는 가문주의 이념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는 그들의 논의가 획일적인 이념의 잣대에 따라 그 만큼 도식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한계는 이후의 논의들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난다.

윤기덕(1963)³⁴⁾은 <사씨남정기>를 “전형적 환경에서의 전형적 성격을 창조”한 사실주의 작품으로 보고, 교씨의 형상을 특히 주목하였다. 그는 교씨가 “장점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첩이라는 사회적, 가정적 처지” 때문에 자멸로 운명을 이끌어 가는 악인으로 변했으며, 그런 점에서 그녀는 가혹한 봉건 사회의 희생물이라 하였다. 이처럼 교씨의 악이 제도의 모순에서 배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를 통해 ‘악에 대한 증오는 그 악의 원인에 대한 증오이며,

31) 『조선문학통사(1959)』, 275쪽 / 윤세평(1959), 189쪽.

32) 윤세평(1959), 194쪽.

33) 김하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문예학의 발전』, 『조선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 토론회』(문학분과), 사회과학출판사, 1989, 39-40쪽.

34) 윤기덕, 『사실주의에 관한 엥겔스 명제의 옳은 이해와 그의 발생 시기 문제』, 『우리 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토론회)』,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1963, 227-251쪽.

교씨의 처단에는 그를 낳은 사회, 제도에 대한 처단의 정신이 숨어 있다'고 한 그의 논의는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교씨의 파멸을 봉건사회 전반의 몰락으로 해석하거나, 사실주의적 성과를 너무 과장한 것 등은 이념의 과잉이 빚어낸 한계였다.

『조선문학사(1977)』³⁵⁾는 이전의 성과를 대체로 수용하되 반봉건적 시각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사씨나 유연수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유연수는 물론 사씨도 “유교교리의 화신으로 유형화”된 “무위무능”한 인물로 평가된다. 선인계열과 악인계열의 대립은 “반동적인 세력과 진보적인 역량간의 갈등과 투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내부의 모순과 알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등장인물 중에 “정확한 의미에서의 긍정적 인물은 없으며”, 사씨나 유연수는 단지 착하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는 “조건부적 긍정인물”일 뿐이라고 본다. 다음은 사상적 불철저성에 대한 비판의 강화이다. 선악의 평가를 봉건 유교적 관점에 따른 결과, 축첩제의 모순을 폭로하면서도 착한 첩은 긍정하고, 봉건 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하면서도 선한 통치자의 어진 정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축첩제도나 봉건 통치체제의 부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을 설교한 것”은 이 소설의 본질적인 사상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변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과업이 전면에 나선”³⁶⁾ 1970년대 시대 상황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북한 문예학사 제2기³⁷⁾에 해당하는 1970년대 이후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예이론을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 시킨 주체적 문예사상”이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지도적 지침”이 되면서, 문학사 서술에서도 “주체성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3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357-362쪽.

36) 김하명(1989), 33쪽.

37) “지난 40여년간의 우리 문예학의 역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그 첫단계는 조국이 해방된 1945년 8월 15일부터 1960년대까지, 둘째 단계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과업이 전면에 나선 1970년대 이후 시기이다.” 김하명(1989), 33쪽.

위한 창조적 탐구가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봉건 가족제도나 축첩제의 모순,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봉건관료의 추악성에 대한 비판의 강화, 봉건적인 선인형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품의 사상적 불치저성에 대한 비판 등이 모두 이와 연결되어 있다.

『사씨남정기(1982)』³⁸⁾, 『조선문학사 I (1982)』³⁹⁾, 정홍교(1985)⁴⁰⁾, 김춘택(1986)⁴¹⁾, 정홍교·박종원(1986)⁴²⁾ 등은 『조선문학사(1977)』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봉건제도와 축첩제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 점, 봉건 유교 도덕을 이상화하고 봉건 유교 교리에 기초하여 선악을 평가함으로써 유교 도덕을 합리화한 점 등 봉건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자의 계급적·세계관적 한계가 보다 분명하게 적시되고,⁴³⁾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상과 그들의 기생층적 생활”⁴⁴⁾ “봉건 시기 악질 관료들의 정신도덕적 저열성과 생활 리면의 추악성”⁴⁵⁾ 등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한층 강화된다. 굴곡 많은 사씨의 삶과 운명은 “유교도덕이란 사람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며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⁴⁶⁾ 것으로 해석되고, 작품이 보이는 언어표현상의 특징은 ‘묘사에서의 통속성 보장’으로 그 가치 평가가 구체화된다.

이들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권선징악적 서사 논리에 대한 재평가이다. 『조선문학통사(1959)』는 “선악의 과보(果報)”를 “중세기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로 들었는데, 이들은 그것이 비록 유교적 도덕관념에서 비롯된

38) 편집부,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에 대하여』, 『사씨남정기·배비장전』, 문예출판사, 1982, 3-6쪽.

39)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394-400쪽.

40) 정홍교 외, 『사씨남정기』, 『조선 고대중세 문학작품 해설』, 백과사전출판사, 1985, 71-81쪽.

41)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297-316쪽).

42)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 I』, 사회과학출판사, 1986, 197-201쪽.

43) 『사씨남정기(1982)』, 6쪽 / 『조선문학사 I (1982)』 396-397쪽 / 김춘택(1986), 306쪽 참조.

44) 『조선문학사 I (1982)』, 399쪽.

45) 정홍교·박종원(1986), 200쪽.

46) 『조선문학사 I (1982)』, 396쪽.

것이기는 하지만 “착한 것을 바라고 악한 것을 증오하는 그 당시 인민들의 도덕관념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 하여⁴⁷⁾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이후의 논의들에 그대로 계승된다. 하지만 ‘착한 것을 바라고 악한 것을 증오하는 것’이 민중만의 도덕관념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면 ‘민중적’이지 않은 고전소설은 별로 없을”⁴⁸⁾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고전소설 해제(1991)』⁴⁹⁾와 최옥희(1991)⁵⁰⁾는 기존 견해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자기 견해를 덧붙이고 있으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여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작품 창작 시기 추정은 김태준(1939)의 논의를 넘어서지 못했고, “인물들의 성격을 작가의 주관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리상화하지 않고 있으며 객관적인 생활론리를 통하여 묘사하려는 사실주의적 창작 수법이 위주로 쓰이고 있다”⁵¹⁾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왕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는 목적의식 때문에 낭만적 형상화를 하지 못하고 사실적 형상화를 해야 했다는 주장⁵²⁾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가장 최근에 나온 『조선문학사4(1992)』⁵³⁾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선행 논의들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사씨남정기>는 “축첩제도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여, 축첩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해 온 『조선문학사(1977)』 이래의 통설을 뒤집고 있다.⁵⁴⁾ 또한 봉건 가족제도나 축첩제로부터 봉건 지배체제 자체에

47) 『조선문학사 I (1982)』, 397쪽 / 김춘택(1986), 304쪽.

48) 박희병, 「최근 북한 학계에서의 고전소설사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600쪽.

49) 조선문학창작사 고전문학실, 『사씨남정기』, 『고전소설 해제(2)』, 문예출판사, 117-130쪽.

50) 최옥희, 「김만중의 두 소설에 깃든 사연」,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55-63쪽.

51) 『고전소설 해제(2)』, 129쪽.

52) “이런 일을 허술히 하거나 량만주의적 수법으로 처리하다가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나가야 하였다.” 최옥희(1991), 51쪽.

53) 김하명, 『조선문학사 4』, 사회과학출판사, 1992, 284-318쪽.

54) 저자는 “일부 학자들은 <사씨남정기>를 분석하면서 두부인의 형상에 대하여

로 관심이 이동되면서 지배층과 인민간의 계급적 대립이 강조되고 있다. <사씨남정기>는 처첩간의 모순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불행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토대하고 있는 봉건제도 자체의 필연적 소산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봉건적 관료제도의 반인민성, 양반 통치배들과 인민들간의 불상용적인 모순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⁵⁾

또 다른 변화는 사씨와 유연수, 시비 춘방에 대한 평가이다. 사씨는 유교 규범의 맹신자가 아니라 주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강의하고 정의감이 센 녀성”으로, 인간에 대한 성실한 태도, 봉건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적 사랑, 순결성과 검박성, 근로 애호적인 성품 등으로 “민족적 특성”⁵⁶⁾을 체현한 인물로 재평가되며, 유연수의 형상은 “봉괴기에 들어선 17세기말 봉건조선의 양반 계급의 창조력의 고갈,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도 무력하게 되어 가는 과정을 예리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시비 춘방은 “그 어느 양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상한 정신세계, 참다운 인간적 품모”를 갖춘 인물로, 그녀를 이처럼 “개성이 뚜렷한 인물로 전형화한 것”은 인물 형상 창조의 중요한 성과로 새롭게 주목된다.

하지만 <사씨남정기>는 “축첩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작품내의 갈등 또한 지배층과 인민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품 의미를 봉건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계급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봉건 사대부의 관점에서 이상화한 사씨의 형상을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충비(忠婢)의 관념적 형상인 춘방을 ‘고상한 정신세계와 참다운 인간적 품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전혀 무시하고 사부인이 …중략… 다시 남편에게 림씨녀를 첩으로 추천하여 집에 데려오는 사실을 가지고 <작자가 일부다처제를 찬성하>였으며, <개별적인 첩의 해독성을 폭로하였을 뿐 봉건적 일부다처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장편소설 <사씨남정기>의 형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일부 형상만을 중시함으로써 작품의 사상 예술적 가치를 외곡하는 결과를 초래한 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히 주를 달아 이를 강조하고 있다. 김하명(1992), 298쪽.

55) 김하명(1992), 291-292쪽.

56) “우리 인민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15권, 89쪽)

모'를 갖춘 개성적 인물로 평가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권선징악을 “작가의 인도주의적 입장을 구현한 것”으로, ‘봉건제도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더 좋은 통치자에 대한 교체를 바란 것’을 “김만중의 애국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자에 대한 긍정적 선입견과⁵⁷⁾ 반봉건성·주체성·인민성·애국심·인도주의라는 이념의 과잉에서 비롯된 무리한 해석으로 선행 연구들의 온당한 해석마저 부정해 버림으로써 연구 수준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양화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계기를 설정하여 창작적 구상을 실현하였던 것”이라 하여, 작품의 낭만적 경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새로운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IV. 쟁점 및 해결의 전망

지금까지 <사씨남정기>에 대한 연구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단 이후 남북 학계의 연구는 그 접근 시각이나 태도, 작품 해석과 평가 등에 있어 큰 편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남한 학계는 작품론, 유형론, 이본 연구 등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진행해온 반면, 북한 학계는 주로 작품론에 관심을 집중하며 사회주의 이념이나 주체사상의 틀 속에서만 논의를 진행해온 결과이다. 이제 남북한 학계의 논의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57) 김만중은 우리말과 우리말 문학의 가치를 인식한 주체성 있는 사대부로서, 또 일찍부터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로서 한결같이 높이 평가되어 왔으며, 이러한 긍정적 시각은 그의 소설 작품을 해석, 평가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창작 동기 및 시기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와 관련된 논란은 김춘택(1670-1717)과 이규경(1788-?)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태준(1939)이 이규경의 견해를 받아들여 목적소설론을 재확인한 뒤, 남한 학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 동안 이어지다 차츰 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근 목적소설론이 다시 제기되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고,⁵⁸⁾ 북한 학계는 기본적으로 목적소설론을 전제하면서 김춘택의 견해도 함께 수용하는 절충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창작 동기 문제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작품외적 문제이긴 하나,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에 대한 접근 태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⁵⁹⁾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목적성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이를 작품 해석의 준거로 삼기보다는, 목적성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작품 자체에 충실하는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진위가 불확실한 작품외적 목적성은 작품 해석에 있어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조 사항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 문제 또한 창작 동기 문제와 직접 맞물려 있다. 김태준(1939)이 창작 시기를 서포의 남해 유배 기간(1689-1692)으로 본 이래, 북한 학계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남한 학계 역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서포가 ‘인현왕후를 내친 숙종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 작품을 지었다’는 이규경의 기록과, 서포가 1689년 윤3월에 남해로 귀양을 가고 동년 4월에 인현왕후가 폐출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추정인데,⁶⁰⁾ 앞으로 좀더 정밀한 고증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김춘택의 기록처럼 이 작품이 ‘일반 부녀자를 깨우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이런

58) 각주 26) 참조.

59) 정치적 목적을 창작 동기로 보는 논자들의 경우 작품 해석에 있어 작품 내적 갈등이나 사건을 당대 정치 현실의 우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한 학계의 초기 연구나 북한 학계의 연구가 그렇고, 이상구(1993, 2000) 또한 그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

60) 서포는 1689년 윤3월 남해로 귀양을 떠났고, 동년 4월에 인현왕후가 폐출되었다.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 출판부, 2001, 203쪽 참조.

추정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운 데다가, 목적소설론의 출발점이 되는 이규경의 기록은 그 자체의 신뢰성에 치명적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⁶¹⁾

2. 작품 해석과 관련된 문제

(1) 작품을 보는 시각

남한 학계는 작품 속에서 축첩제나 가부장제의 질곡, 가문주의 이념, 욕망과 선악의 문제 등을 주로 읽어내고 있는 반면, 북한 학계는 축첩제나 가부장제의 질곡을 넘어 봉건 유교이념의 모순성, 양반계급의 도덕적 타락상, 봉건 지배층의 부패상 등을 읽어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사씨남정기>는 ‘사씨-교씨’ 대립축과 ‘유연수-엄승’ 대립축으로 짜여 있는데, 남한 학계가 전자에 관심을 집중하며 후자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면, 북한 학계는 후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봉건 지배체제와 양반 관료들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고 있다. ‘유연수-엄승’ 대립축은 ‘사씨-교씨’ 대립축과 함께 작품의 서사 진행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의 하나이고, 거기에는 당대 정치 현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합당하게 주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반성이 필요하지만, “부정인물”의 허구적 형상을 당대 봉건 지배층의 실제 형상으로 일반화하여 반봉건 이념과 연결시키는 실상의 왜곡은 더 큰 문제이다. ‘유연수-엄승’의 대립은 외형상 충신과 간신, 선인과 악인의 대립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 후기 과당적 정쟁의 한 형상인만큼, 선악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작자의 시각에 끌려감이 없이 거기 담긴 현실적 의미를 보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독법의 차이는 연구에 임하는 논자들의 접근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남북의 체제 및 이념 차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반봉건적 의미를 읽어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61) 이규경은 <사씨남정기>를 북한 김춘택의 작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그가 주장한 창작 동기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작자의 창작 의도를 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원수(1982), 136-137쪽 참조.

북한 학계의 작품 해석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근로자들의 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을 지향⁶²⁾하는 사회주의 문예이론 및 주체적 문예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학계가 이 작품을 유교 가문주의나 봉건적 가부장제 이념, 사대부적 의식을 드러낸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북한 학계는 이 작품을 봉건 유교 지배체제의 모순과 양반 계급의 부패·타락상을 드러낸 반봉건적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에 그러한 반봉건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을 하나의 총체로 보지 않고 논자의 편의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끌어와 그 의미를 과장하는 것은 이념의 과잉에서 초래된 한계라 할 수밖에 없다.

권징적 서사 논리와 행복한 결말에 대한 남북 학계의 인식 편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것이 지닌 관념성에 대해서는 남북 학계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남한 학계가 이를 기존 질서나 가치 규범을 유지하려는 작자의 의도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반면, 북한 학계는 이를 ‘착한 것을 바라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민중들의 도덕관념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관점이 사실상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징적 서사 논리와 행복한 결말은 우리 고전소설 일반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고, 앞서 지적한 바처럼 이를 민중적인 것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와 작자 의식, 당대 독자층의 성격과 그들의 기대지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보다 정밀하게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축첩제에 대한 인식

남한 학계에서는 작자가 ‘축첩제를 합리화했다’는 견해와 ‘축첩제 철폐를 주장했다’는 견해가 대립되다가, 축첩제의 질곡적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도 자체의 철폐보다는 제도 안에서의 바람직한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비해 북한 학계에서는 작자가 축첩제의 모순은 비판하되 축첩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오다 최근 들어 축첩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관점을 바꾸었다. 남북한 학계의 관점이 서로 상반된 방향

62) 김하명(1989), 34-35쪽, 38쪽.

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때 축첩제를 긍정하고 있다는 핵심적 논거는 임씨의 영입이고, 축첩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핵심적 논거는 축첩의 폐해를 지적하는 두부인의 발언인데, 두부인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서 작자가 축첩의 문제점을 이처럼 강하게 드러낸 의도가 무엇일까가 문제된다. 임씨의 영입에도 불구하고 ‘축첩제 반대’가 작자의 입장이라는 북한 학계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작자가 축첩의 폐해를 심각히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것을 바로 축첩제에 대한 반대⁶³⁾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작자는 축첩에서 비롯된 유씨 가문 혼란의 책임을 교씨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려 제도의 모순을 은폐하고 있으며, 첩만 제 분수를 지키면 축첩제 아래서도 얼마든지 가정 화목이 유지될 수 있음을 착한 첩 임씨를 통해 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자가 적극적으로 축첩제를 ‘긍정하며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학계의 주장처럼 원칙적으로는 축첩제에 반대하면서도 당대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소극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3) 작중 인물에 대한 평가

작중 인물의 삶에 대한 평가는 작품을 보는 연구자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따라서 <사씨남정기>의 작중 인물에 대한 남북 학계의 평가도 남북의 이념 차이에 상응하는 편차를 보인다. 여기서는 작품의 중심 인물인 사씨·교씨·유연수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선인형인 사씨의 경우, 남한 학계에서는 유교 이념에 충실한 관념적이고 소극적인 인물로 주로 평가되어 왔는데, 최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보아야 한다⁶⁴⁾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학계에

63) 여기서 우리는 북한 학계에서 말하는 ‘축첩제 반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는 분명 ‘부정’과는 다른 말이고, 그런 점에서 ‘축첩제 반대’가 곧 ‘축첩제 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학계가 주장하는 ‘축첩제 반대’의 의미가 <축첩제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라면, 이는 남한 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64) 지연숙(2000), 앞의 글, 정출현(2000·B), 앞의 글.

서는 ‘선량하기만 한 인물’에서 ‘유교 교리의 화신으로 형상화된 무위 무능한 인물’로, 다시 ‘민족적 특성을 체현한 강의하고 정의감이 센 여성’으로 평가가 바뀌어 왔다. 남한 학계에서 보이는 의견 차이는 작품을 보는 연구자들의 시각 차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북한 학계에서 보이는 변모의 궤적은 북한의 통치 이념 변화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분단 직후 반봉건적 사회주의 이념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사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나, 주체사상이 강화되면서 민족적 특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이르자 긍정적 평가로 바뀐 것이다.⁶⁵⁾

하지만 북한 학계에서 말하는 ‘민족적 특성’이란 것은 너무 주관적인 잣대여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사씨에 대한 평가는 결국 그녀를 ‘관념적·소극적인 인물’로 볼 것인가, ‘현실적·적극적인 인물’로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그런데 사씨를 현실성이 결여된 관념적·이념적 인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너무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보는 것⁶⁶⁾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 이념이나 부덕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사씨의 실리에 유익한 결과가 되는 것은 권징적 결말을 통해 가부장제 이념과 부덕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의 서사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며, 사씨가 ‘이념의 실천’을 통해 실리를 보상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그만큼 이념형적 인물임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인형인 사씨와 달리 악인형인 교씨에 대한 남북 학계의 평가는 큰 편차가 없다. 교씨는 처음 타고난 품성의 간악성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평가되다가, 축첩이나 적서차별과 같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인물로 평가가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는 남북 학계의 공통된 흐름이다. 다만 반봉건적 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교씨의 악행

65) 북한 학계에서 내세우는 사씨의 ‘민족적 특성’은 김일성이 교시한 ‘민족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66) 사씨는 이념의 실천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고, 그 명예는 곧 자신의 입지 강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씨는 유가의 안주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철저히 자각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매사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견해(지연숙, 앞의 글)나, 사씨는 가부장제의 희생자가 아닌 거대 가문의 2인자, 가장의 권력 파트너로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의, 협조한 인물이라는 견해(정출현, 앞의 글) 등이 이에 속한다.

을 봉건 지배체제나 가족제도의 모순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었는데, 남한 학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늦은 1980년대에 와서야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차가 있었을 뿐이다.

선인형과 악인형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유연수에 대한 평가는 남북간에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우선 유연수를 횡포한 가장권을 행사하는 무능력한 가장으로 보는 데는 남북한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남한 학계는 그의 관료로서의 형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달리, 북한 학계는 그의 관료로서의 형상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유연수는 엄승·동청·냉진 등 인민을 착취하는 ‘부패한 악질 관료’에 맞서는 ‘청렴 강직한 착한 관료’라는 것이다. ‘유연수-엄승’ 대립축을 당대 정쟁의 허구적 형상화로 보는 남한 학계와 달리, 북한 학계는 이를 문면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하지만 유연수의 긍정적 형상이나 엄승·동청 등의 부정적 형상이나 모두 선악대결이라는 구도에 따라 창조된 허구적 형상이므로, 이를 사실의 형상화로 받아들여 그들의 선악에 너무 큰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작품의 사실성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기초한 북한 학계에서는 『조선문학통사(1959)』에서부터 <사씨남정기>를 사실주의적 작품으로 보고, 이후 이를 더욱 발전, 구체화하면서 사실주의적 미학을 이 작품의 가장 탁월한 성과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작품은 “디테일의 진실성 외에 전형적 환경 속에서의 전형적 성격들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작품으로,⁶⁷⁾ “객관적인 생활 논리를 통하여 묘사하려는 사실주의적 창작 수법이 주로 쓰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남한 학계에서 이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⁶⁸⁾ 이 작품이 사실적 경향을 일정하게 지니고 있음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67) 윤기덕(1963), 246쪽.

68) <사씨남정기>가 지닌 현실성, 사실성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지만, 이를 ‘사실주의’와 구체적으로 연관시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구(1993)에 와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의 논의는 북한 학계의 연구 동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씨남정기>가 교씨나 설매와 같은 인물의 형상화, 봉건적 가부장제와 축첩제라는 질곡적 현실의 객관적 반영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실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작품세계의 낭만적 경향을 소홀히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작품이 중세의 질곡적 상황 자체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만, 거기서 기인된 사건의 전개 및 해결 과정은 작자의 이념에 따라 관념적·낭만적으로 형상화한 측면이 강하고, 사씨나 유연수의 인물 형상도 이념적·관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의 온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의 사실적 경향과 낭만적 경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이처럼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은 작품 의미나 작자 의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내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과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작품을 보는 논자들의 관점 차이와도 관련이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개념 혼란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용어들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주의나 리얼리즘이란 말은 현재 남북 학계에서, 또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나 외연을 지닌 채 쓰이고 있고, 이것이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겉돌게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 남북의 통합을 위하여

<사씨남정기> 연구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남북이 분단된 해방 이후부터였다. 남북 학계는 분단 이전의 연구 성과를 공동으로 계승하였지만, 분단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교류가 단절된 채 제각각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남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는 접근 시각이나

태도, 작품 해석과 평가 등에서 체제나 이념의 차이만큼이나 큰 편차를 드러낸다. 남한 학계가 작품론, 유형론, 이본 연구 등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온 반면, 북한 학계는 작품론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문예이론 및 주체적 문예사상의 틀 안에서만 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다. 남한 학계는 작품 속에서 축첩제와 가부장제의 질곡, 가문주의 이념, 욕망과 선악의 문제 등을 주로 읽어내고 있는 반면, 북한 학계는 축첩제와 가부장제의 질곡을 넘어 봉건 유교이념의 모순성, 양반계급의 도덕적 타락상, 봉건 지배층의 부패상 등을 읽어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한의 <사씨남정기> 연구에서 드러나는 편차는 창작 동기나 창작 시기 문제처럼 사실과 관련된 것도 있고, 작품 해석이나 평가처럼 인식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통일을 대비한 온전한 민족문학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인식과 관련된 편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사실과 관련된 편차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견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인식과 관련된 편차는 연구자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차이와 연관되어 있어 이견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신념이나 가치관 차이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점은 문제 해결을 한층 어렵게 한다.

따라서 남북 학계의 <사씨남정기> 연구 성과를 통합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연구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과 생각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을 자기 목적적 가치로 보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이를 사회 개조와 애국주의 교양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남과 북은 문학을 보는 기본 관점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과 맞물려 있어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옳다 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품 해석이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의 해결에 앞서 문학을 보는 기본 관점부터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씨남정기> 연구에서 드러나는 북한 학계의 연구 경향은 사실 이 작품의 경우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⁶⁹⁾

주제어 : 창작 동기, 목적성, 축첩제도, 가부장제, 가문주의, 사실주의, 사회주의
문예이론, 주체적 문예사상

69) 이런 경향은 북한 학계의 <공위팔귀> 연구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확인된다. 이 원수, 「<공위팔귀> 연구의 경과와 전망」, 『어문학』 제61집, 한국어문학회, 1997, 231-252쪽 참조.

참고문헌

1. 분단 이전 논저

-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09-123쪽.
안 환,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101-102쪽.
조윤제, 「조선소설사 개요」, 『문장』 제2권 7호, 1940(『도남조윤제전집·4』, 태학사, 1988, 49-67쪽.)

2. 남한 논저

-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121-154쪽.
강중탁, 「사씨남정기의 불교사상」, 『명지어문학』 제11집,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79, 97-107쪽.
김경미, 「사씨남정기 작중인물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1-77쪽.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302-307쪽
김무조, 『서포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6, 1-273쪽.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 출판부, 2001, 203쪽
김석희, 「서포소설의 주제 시론」, 『선청어문』 제18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9, 234-246쪽.
김연숙,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사씨남정기>」,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49-90쪽.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1-91쪽.
김현룡, 「사씨남정기 연구」, 『문호』 제5집,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1969, 136-146쪽.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7, 91-113쪽.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17-245쪽.

-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 박희병, 『최근 북한 학계에서의 고전소설사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587-610쪽.
-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구도』, 『한국문학연구』 제2집,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175-207쪽.
- 엄기주, 『<사씨남정기>의 의미와 서포의 작자의식』,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3, 233-264쪽.
- 우리어문학회편,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259쪽.
- 우상렬·이광호, 『한국학 관계 북한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 목록』, 『정신문화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59-296쪽.
- 우쾌제, 『<사씨남정기> 연구』, 『승전어문학』 제1호, 송전대 국어국문학회, 1972, 49-68쪽.
- 우쾌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이금희, 『<남정기>의 문헌학적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6.
-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작품구조와 인물 형상』, 『김만중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219-297쪽.
-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 371-396쪽.
- 이석래, 『서포소설(남정기·구운몽)의 문제점』, 『성심어문논집』 제1집, 성심여대, 1966, 13-16쪽.
- 이성권, 『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 1998, 22-53쪽.
- 이승복, 『처침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5, 35-48쪽, 169-175쪽.
-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 『문학과 언어』 제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2, 135-158쪽.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1, 1-242쪽.
- 전규태, 『<사씨남정기> 연구』, 『한국고전문학의 이론』, 정음사, 1966, 276-296쪽.
- 정규복, 『<남정기> 논고』, 『국어국문학』 제26호, 국어국문학회, 1963, 291-307

쪽.

정규복, 「<남정기>의 저작 동기에 대하여」, 『성대문학』 제15·16호, 성균관대, 1970, 35-39쪽.

정규복, 『번언남정기고』, 『연민이가원박사 육질송수기념논총』, 범학도서, 1977.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295-309쪽.

정출현, 『조선후기 가정소설의 전통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A), 397-424쪽.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고전소설』, 『문학과 교육』 제12집, 문학과교육연구회, 2000(B).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제1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0, 146-172쪽.

진경환, 「소설사적 관점에서 본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의 관계」,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299-337쪽.

차용주, 「양처 및 처첩간의 갈등양상에 대한 고찰」, 『고소설논고』, 계명대 출판부, 1985, 171-199쪽.

최시한, 「가정소설의 형식과 유교이념(1)」, 정연찬선생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989, 559-586쪽.

3. 북한 논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 (깊은샘, 1992), 272-277쪽.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394-400쪽.

김철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과학의 발전』, 『조선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 토론킵(문학분과)』, 사회과학출판사, 1989, 18-31쪽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297-316쪽).

김하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문예학의 발전』, 『조선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 토론회』(문학분과), 사회과학출판사, 1989, 32-42쪽.

- 김하명, 『조선문학사 4』, 사회과학출판사, 1992, 284-318쪽.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357-362쪽.
- 윤기덕, 「사실주의에 관한 엥겔스 명제의 옳은 이해와 그의 발생 시기 문제」, 『우리 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토론집)』, 과학원 언어문학 연구소, 1963, 227-251쪽.
- 윤세평, 「서포 김만중과 그의 창작」, 『고전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149-203쪽.
- 정홍교 외, 「사씨남정기」, 『조선 고대중세 문학작품 해설』, 백과사전출판사, 1985, 71-80쪽.
-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 I』, 사회과학출판사, 1986, 197-201쪽.
- 조선문학강좌 편, 『조선문학강독(2)』(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1955, 132-134쪽.
- 조선문학창작사 고전문학실, 「사씨남정기」, 『고전소설 해제(2)』, 문예출판사, 117-130쪽.
- 최옥희, 「김만중의 두 소설에 깃든 사연」,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55-63쪽.
- 편집부,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에 대하여」, 『사씨남정기·배비장전』, 문예출판사, 1982, 3-6쪽.

<Abstract>

Progress of Studies in *Sassinamjonggi*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Future Prospect

Lee, Wo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new direction of the future study in *Sassinamjonggi* based on variations and differences, successes and limits among studies of *Sassinamjonggi*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looked into two periods of time, before and after the division of Korea. After the division, the studies of North and South Academia were examined. This study found out and analyzed some issues in these studies. The summaries are following.

Sassinamjonggi had been studied from 1920's. After the independence, the research became in full scale. Academia in South and North succeeded the values of studies in *Sassinamjonggi* before the division. However, after the division, each had its own way of studying without any further communication between. As the result, the study of *Sassinamjonggi* in South and North academia had a gap in how to approach, to interpret and to evaluate *Sassinamjonggi* as big as one in system and ide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uth academia has interests in an evaluation and appreciation of the work, the type, and the different versions; on the contrary, the North focuses on the work itself in order to lead the discussion within the frame of socialistic and subjective literary art. The South finds out about the concubinage, the fetters of paternalism, the familism, and the good and evil in *Sassinamjonggi*; yet, the North puts more value on the contradictions of feudal Confucianism, the depravity of YangBan class, and the corruption of the ruling class than on the concubinage and the

paternalism.

The differences in studies of South and North academics are resulted in a fact like a problem of the motive and the time of *Sassinamjonggi*, and a perception like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Sassinamjonggi*. In order to prepare a sound nation's literacy and art study on Korea's unification, we need to think hard how to reduce the gap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perception. The different opinion regarding to the fact can be narrowed down through verifying the facts.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will not be easily diminished because of diversity of scholars' beliefs and values. This diversity does not occur becaus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belief and value. It is rooted in two totally different systems and ideologies.

To settle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to precede to further discussions in *Sassinamjonggi*, we need a honest understanding of the outcomes of studies done by both sides. Understanding others requires accepting other's views and thoughts without insisting on own view's and thoughts. Also, South and North ought to adapt a way to look at the literature because they perceive it differently. The South academics look at the literature for self fulfilling purpose, but the North ones consider the literature to be a means for reconstruction of a society and for teaching patriotism. This difference is basically related to a view what the literature is, so that it is not easy to say which is right or wrong. Before bringing up solutions regard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Sassinamjonggi*, it is why we need to rethink the perception of how to look at the literature. The trend of the North academia shown in *Sassinamjonggi* is apparently presented in other classical literature studies.

Key Words : Motive of Writing, Purpose of Writing, Concubinage, Paternalism, Familism, Realism, Socialistic theory of literary art, Subjective ideology of literary art